

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.

발 의 자 : 김용민 · 박지원 · 박민규  
민형배 · 노종면 · 주철현  
송재봉 · 부승찬 · 임미애  
김남희 · 임오경 · 박희승  
한준호 · 백승아 · 민병덕  
서미화 · 김승원 · 장경태  
이원택 · 정진욱 · 안태준  
위성락 · 박성준 · 문진석  
김현정 의원(2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.

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,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. 또한,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, 정

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,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6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~ ⑤ (생   략) <u>&lt;신   설&gt;</u>	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</u> <u>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</u> <u>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</u> <u>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</u>